

# 추석 연휴 가족 손잡고 프린지페스티벌 보자

### 30일~10월 7일 광주 문화전당앞 5·18민주광장

### 한·일·중·태국 12개팀 참여 '아시아 마임캠프' 30일 열려

### 10월 7일 별론 서커스·거리극 등 작품성 검증된 공연 펼쳐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에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30일~10월 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오는 30일에는 오후 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일본 중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임 작가들의 '아시아 마임 캠프'가 열린다.

해외작품으로 ▲농 하오(Nong Hao, 태국)의 '하오 마임쇼' ▲차이니스 오페라(Chanines Oper, 중국)의 '경극' ▲카네코 신페이(Kaneko Shinpei, 일본)의 '꽃

은 어디에 있는가', 국내작품으로 ▲유진규의 '꽃' ▲신용의 광대극 '방울이 낮잠여행' ▲현대철의 '피에로의 외출' ▲극단 사다리의 '빛깔 있는 꿈' ▲조성진의 '원앙부인의 꽃밭' ▲이정훈의 '나비와 나' ▲양미숙의 '깨끗' 등이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마임 작가 12개 팀이 합동으로 펼치는 '버블버블 아시아'로, 예술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현실과 환상을 '버블'로 형상화하여 나타내는 작품으로 마임 작가와 관객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시간을 마련한다.

오는 10월 7일에는 작품성이 검증된 인기 공연으로 추석 연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관심을 모으는 작품으로는 ▲미아의 '소경들' ▲아미의 '오! 럭키데이!' ▲젠탄스 컴퍼니의 '청춘예찬' ▲매직유랑단의 '별론 서커스' ▲신디매지의 '편편매직별론쇼' 등이 있다.

미아의 '소경들(Blind Person)'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소통이 단절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아미의 '오! 럭키데이!'는 어느 날 '오늘의 운세'를 보고 행운의 날 귀인을 만나러 가

리에 나온 공주 할머니가 방해꾼인 사탕장수 할머니를 만나 좌충우돌하는 에피소드로, 탭댄스와 결합한 유쾌한 거리극이다.

또 젠탄스 컴퍼니의 '청춘예찬'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삶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이 시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한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공연을 펼치는 젠탄스 컴퍼니는 이번 작품에서는 현대무용의 아름다운 동작보다는 청춘을 대표하는 세련된 두 남자의 캐릭터가 자유로운 움직임의 추구하며 청춘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준다.

이밖에 락엔발룬티어스의 '해금버스킹',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디의 '지치배배 흥부전', 극단 파랑새의 '오잉?오잉!' 등 즐겁게 볼 수 있는 공연들이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 오광록기자 kroh@

## 광주시, 장애인 127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광주시가 올해 장애인 127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22종 127대를 보급했다.

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 혁신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시행, 지난해까지 총 1539대를 보급했다.

이번에 보급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점자정보단말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시각장애 보조기기 10종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2종 ▲영상전화기, 언어소통보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청각 및 언어 보조기기 10종 등 68종 중 22종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하며, 광주시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한다. 단,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도 상반기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보급제품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확인하고, 관련 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또는 광주시 스마트행정담당관실(062-613-2613)로 연락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이주기업 직원 안정 정착 지원대책 등 촉구

###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의회(의장 이은방)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61회 임시회 폐회식을 갖고 15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경남·유정심·김용집·문태환·김옥자·이정현·박춘수 의원이 광주시 및 시교육청 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조례안 26건, 동의안 3건, 시교육청추경예산안 1건 등 총 34건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2조491억원 규모(기정예산 대비 552억원 2.8% 증가)의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마옥(비례·민

중연합당) 의원은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한 광주시 지원은 많이 있지만 정착 함께 이주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에서 광주로 이전해온 대우 유니아를 예로 들며 "대우 유니아 300명 근로자 중 일부는 유혹가한 복판에 있는 모텔에서 기거하기도 한다"며 광주시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이전기업 이주 직원 거주비 지원, 직원 대상 설비투자 시 보조금 지원, 문화공연 관람 초청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주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녹색축산육성기금

### 전남도, 20억 추가 지원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확산을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 HACCP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 유통업체 등이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며, 융자기금은 연리 1%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시설자금은 최고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시군에 비치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10월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올해 지원한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축산농가·법인·업체 61곳에 204억원, 고병원성 AI 피해농가 88곳 특별운영자금 16억원 등 총 220억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크라이나 탄약기지 폭발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 서부의 칼리니카에 있는 탄약 기지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폭발에 따른 화재 후 3 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피했다고 밝혔다.

품을 소개해 추석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센터는 9월 현재까지 4400여 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채무조정 380명, 서민대출상담 180명, 저소득층 복지상담 100명 등 660여 명을 상담하며 재기를 도왔다.

고금리 대출, 과도한 가계부채, 주거문제 등으로 서민금융 및 복지주거 서비스를 상담 받고자 하는 시민은 센터(062-613-6700~6703)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상담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통시장 방문 '찾아가는 채무상담'... 금융사기 예방 홍보

### 광주시 채무회령행복상담센터

광주시 채무회령행복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0일 무등시장에 이어 27일 말바우시장에서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열고 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상담원 4명

이 채무, 대출, 복지 등 생활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어도 센터를 찾아오지 못한 시민과 상인들과 상담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일용근무를 하고 있는 60대 A씨는 만성 질환으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빚까지 있는 상태였다. 현장에서 채무조정상담과 함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안내받아 지원신청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하면 요양급여 비용에서 14% 정

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녀의 빚을 걱정하고 있는 B씨는 고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춰주는 바퀴드림론을 상담받고 자녀가 센터를 방문하도록 했으며, 신용회복지원센터나 일반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C씨는 광주시 소액금융지원사업 '빛고을론'을 안내받고 소액대출 상담을 통해 4%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소상공인 대출상

## 지방 정치

### 김보현 시의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효율성 의문"

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민·서구)은 2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2조원이 넘게 투자해 2025년 완공되는 도시철도 2호선의 효율성에 아직도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의원은 이날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2호선이 완공 되도 북구민의 광주순정역 접근성을 개선 못 하고 야구장·터미널 주변 등 광주시내에서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마련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동구 및 북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 광주역 인근 재개발 촉진 요구 등을 제대

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광천사거리, 계수교차로 등 광주 주요거점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

제해결 여지를 없애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역~전대사거리~기아챔피언스필드~종합버스터미널~유덕버들마을~상무역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지선계획'의 동시추진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지선을 '도시철도 1호선 순환노선'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p><b>아모리온</b>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b>아모리온 롱바디</b>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b>아실리바디슈트</b>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격회 1등</p>	<p><b>비비드아모르</b>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